

교육발전특구 연계 특성화고 정책 홍보

전북자치도교육청,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6~8일 3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다.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차별화된 지역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

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특성화고에 진학,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타 시·시도 학생들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도내 7개 대표 특성화고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특성화고 홍보 전시관은 '난 전북으로 간다! 왜? 특별하니까?'를 슬로건으로 △김제농생명고등학교(김제-농생명바이오 산업 분야) △한국치즈과학고(임실-치즈바이오산업) △전북배이커리고(부안-우리밀산업) △전북하이테크고(가칭 '수소에너지' 원주-수소산업) △이리공업고(가칭 '국제배터리마이스터고' 새만금-이차전지산업) △고창 강호항공고 △남원 한국경마축산고 등 교육청-지자체-지역기업 등

이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상생을 이끌어갈 방안으로 구성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해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고 정책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더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6~8일 3일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특성화고에 진학,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타 시·시도 학생들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도내 7개 대표 특성화고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한 알의 밀알, 대학에 떨어지다'

전주대, 11일 개교 60주년 맞아 특별전... 내달 말까지 전시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오는 11일 개교 60주년을 맞아 '한 알의 밀알, 전주대학교에 떨어지다' 특별전 개막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2024년 슬로건인 '지역과 60년 세계로 100년'이라는 대학의 비전과 함께 우리 대학의 100년을 향해 내딛은 발걸음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시는 △한 알의 밀알 전주대학교에 떨어지다 △전주대학교 100년 간의 발전 △지역과 60년 세계로 100년 △빛나는 슈퍼스타 등 4개 섹션으로 나뉘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대학교의 10년 간의 발전을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을 준비한 박현수 실

장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10년간의 발전상과 2014년 개교 관련 학교 역사관을 함께 되돌아보며 학교 구성원과 동문 그리고 지역이 함께하는 전주대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 박물관(063-220-2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LINC 3.0 사업단 산학연 연계 교육 효과 특목

홍민지 학생, 대상 천다연 학생, 최우수

전북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시행하는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교육부 주최 교육과정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회에서 전북대는 홍민지 학생(건축공학과 4년)이 교육부장관상인 대상 수상한 것을 비롯해 천다연 학생(화학공학부·나노화학공학 전공 4년)이 최우수상(한국공학한림원 회장상)을 수상했다.

홍민지 학생은 'Build the Future'라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자립형 실버타운 모델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제시하며 사회적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 모색 과정에서 진로 탐색 경험을 담았다. 이 작품은 캡스톤디자인 참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과 건축적 접근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천다연 학생의 작품인 '미래를 연구하다: KIST에서의 하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 기능성복합소재 연구센터에서의 현장실습 경험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기록하며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의 연계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학습한 내용을 실무에 직접 적용하며 연구 과정을 체험해 큰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 전시장 메인 무대에서 열렸다.

홍민지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축을 통해 도시 재정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철규 연구부총장 겸 LINC 3.0 사업단장은 "대학과 기업, 지역이 연계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대학이 중심이 돼 작은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몽골 3개 전문대학 교수 초청 연수

신재생에너지 활용 중심 기술교육 이해도 강화 등 진행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4~9일 6일간 몽골 전문대학 교수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수 참여자는 몽골 전체 70여개 전문대학 중 몽골 교육부로부터 우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3개(MKPC, KPC, PCU) 전문대학 총장 및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교수 등 18명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몽골 신산업 주력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교육을 중심으로 △교수 역량 강화 △기술교육 이해도 강화 등 전공별 최신 기술 관련 강의, 토론, 협동 학습 등으로 진행됐다.

연수생들은 전주비전대학교 캠퍼스 시설견학, 자동차융합기술원, 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 실증단지, 이차전지 교육시설, 태양광발전소, 한옥마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전북지역과



전주비전대학교는 4~9일 6일간 몽골 전문대학 교수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몽골 3개 대학은 2021년부터 대학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상호 방문, 초청연수, 단기연수 진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초청 연수 대표인 바트터트흐(BATTOGTOKH) MKPC 실습부장은 "이번 연수는 몽골대학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와 교수들의 기술과 교육역

량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이 필요로 하는 좋은 기술자들을 배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비전대의 우수한 연수운영과 훌륭한 교육환경에서 연수 받을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서거석 교육감, 수능 앞두고 수험생 응원 메시지

"수험생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 교육감은 7일 수험생에게 보내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장은성 기자



하루하루 성실하게 공부해 온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이제 그간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면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 해 오던 것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뒷바라지를 해 온 학부모와 학교에서 열정을 다해 지도한 교원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2024 스포츠 안전 논문 공모 2년 연속 수상

전북대 자연과학대 스포츠과학과 류민아 박사·이섬균 교수

전북대학교 류민아 박사와 이섬균 교수(자연과학대 스포츠과학과)가 '2024 스포츠안전 논문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국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62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구두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스포츠이벤트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6P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책임자와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우

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류 박사와 이 교수는 올 3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스포츠이벤트 안전관리 6P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 홍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나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에도 우수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주제와 트렌드에 맞춘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류민아 박사 이섬균 교수

관련 류민아 박사는 2021년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섬균 교수는 2016년 전북대를 졸업, Texas A&M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하다가 올해 6월 스포츠과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오늘 직종별 취업동아리 활동 보고대회

전주기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8일 직종별 취업동아리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에는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음급구조과, 부사관과, 허브조경과, 음악과, 운동재활과, 유아교육과 등 9개 동아리가 참여한다.

취업동아리들은 희망직종 기업탐방, 직무전문가 멘토링, 취업 선배와의 인터뷰를 활용한 목표설정 등 각 동아리별 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활동 및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조덕현 센터장은 "취업동아리는 동일 직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상호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됐는데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기전대학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 곳곳에서 전문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앙도서관, 개교 77주년 맞아 19~20일 김원익 작가 초청 특강

그리스 신화 이야기 주제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개교 77주년을 맞아 오는 19~20일 양일간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 이야기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강연은 (사)세계신화연구소 소장인 김원익 작가를 초청해 브랜드와 신화를 연결한 흥미로운 주제와 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전한다.

강연은 전북대 재학생과 지역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강연의 첫 주제는 '브랜드로 읽는 그리스 신화'로, 19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1층 중도라운지에서 진행된다.

김원익 작가는 스타벅스와 법원 로고, 네이버 검색창의 날개 달린 모자, WHO 로고 등에 담긴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통해 신화가 현대 브랜드와 사회에 스며든 흥미로운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강연은 '영웅, 청년의

삶을 말한다'를 주제로 20일 열린다.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오디세우스, 벨레폰 등 그리스 영웅들이 던지는 7가지 메시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격려와 지혜를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 중앙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선착순 70명이다. 사전신청 이후에는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다과와 기념품도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내일 '전북 학부모 한마당'

홍보·전시·체험마당 등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9일 교육청 앞마당 일원에서 '2024 전북 학부모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가 기획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행사는 크게 홍보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학부모회 활동 사례 전시 및 공유 △VR 체험 △타로 △심폐소생술 △미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계란빵, 떡볶이, 순대,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운영되며, 톨렛 게임을 통한 경품 추첨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학부모 한마당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유미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전북 학부모 한마당 행사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미래교육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 교육 주체가 함께 협력해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학부모 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 A등급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최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심화과정(3~4학년)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3년부터 연차평가 제도를 도입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전주기전대학은 △치위생과 △음급구조과 △유아교육과 △달산산업스

포츠재활과 △허브조경과 △반려동물과 △사회복지상담과 △글로벌산업기술과 등 8개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반려동물과, 사회복지상담과가 이번 운영진단 대상으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들 학과는 교육성과, 교육 운영 관리,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운영조직·지원을 비롯해 운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가 평균점 이상을 상회하는 등 교육 품질 및 성과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장은성 기자